

콘텐츠 개발·홍보...미래 지향 지역관광 전략 빛났다

제3회 광주매일신문 축제·관광대상 시상식 성료

‘충장축제’ 광주 동구·‘물축제’ 장흥군 종합대상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축제·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관광 전략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광주매일신문은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에서 수상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축제·관광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광주매일신문 축제·관광대상에서는 광주동구(광주시장상)와 장흥군(전남지사상)이 각각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 동구청장은 ‘버스커즈월드컵 in광주’ 충장축제 글로벌화와 흥행을 이끌어 국내를 넘어 세계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빛의 분수대가 랜드마크 자리잡는 등 누구나 찾고 싶은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추진해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장흥군은 물축제를 비롯, 통합의학박람회 등 굵직한 문화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테마가 있는 장흥 관광코스 발굴, 도시브랜드 슬로건 공모 등 그동안 관광콘텐츠 개발과 홍보 노력이 높은 평

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물축제는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축제에 역사와 문화의 색채를 덧입히는 데 공을 들였다.

이와 함께 전남관광재단이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라마다프라자&씨원리조트 자은도’가 MICE 부문 최우수상, ㈜광주홍익여행사와 ㈜다음투어가 여행업 부문 최우수상, (유)휴롬광주두바이호텔이 숙박업 부문 최우수상,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송업 부문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버스커즈월드컵 in광주’에서 실무를 맡은 광주 동구 정호준 주무관은 이날 “광주 동구 정호준 주무관은 올해 본 행사의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MZ세대와 기성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무대를 만들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광주매일신문은 지역의 어젠다를 제시하고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역축제·관광산업의 지속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3회 광주매일신문 축제·관광대상 시상식’이 12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자치단체와 기관, 기업, 관련분야 전문가 등 수상자들이 본 사진촬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관광 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수상자들 모두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시장상을 받은 임태 동구청장은 “충장축제가 19년째인데 글로벌 축제로 전환하는 처음 도전이 잘못되지 않을까 부담되고 두려웠지만 좋은 평가로 수상까지 하게 돼 기쁘다”며 “버스커즈월드컵

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의 원인이 됐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49개국 500개팀이 참여해줘 감사드린다. 내년에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동구의 비전을 높이고 꽃피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지사상을 수상한 김성 장흥군수

는 “정말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전남의 인구는 감소 추세여서 지역이 생동감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외부인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관광·축제다. 앞으로 더욱 심혈을 기울여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 축제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광주매일신문 축제·관광대상 수상자는 ▲혁신적 축제·관광 콘텐츠 개발 ▲축제·관광 자원화 기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여 ▲축제 관광업에 홍보·학술적 발전 기여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김대이기자

광주시·경찰청·의료기관, 정신 응급 대응 ‘맞손’

자살·정신건강 위기 발생시 기관별 공조 체계 가동

광주시가 정신과적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광주경찰청을 비롯한 국립나주병원, 지역 정신의료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김기정 시장은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임용환 광주경찰청장, 윤보현 국립나주병원장, 조은용 첨단종합병원장, 김상대 광주시립정신병원장, 김영철 광주제일병원장, 강승변 보은병원장과 함께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응급 입원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 ▲24시간 응급 입원 요청에 대한 치료서비스 제공 ▲거점 정신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등 상호 지원과 협력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정신보건 자살중독 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첨단종합병원, 광주시립정신병원, 광주제일병원, 보은병원을 거점 정신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정신응급환자

의 즉각 치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시를 비롯한 7개 기관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시 기관별 역할과 체계적인 공조로 자살 시도 자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긴밀하게 협조하게 된다.

광주경찰청은 응급 입원 이송·의뢰 및 광주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현장 대응을 맡고, 국립나주병원은 24시간 응급 입원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거점 정신응급의료기관은 자살 시

도와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을 위한 병상을 지원하고 향후 정신응급 대응협의체에 참여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정 시장은 “그동안 시는 정신응급 대응에서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직접 협약의 당사자가 돼 여러 공공·민간 의료기관, 광주경찰청 등과 협조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신응급 대응체계는 환자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인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총출동해 협력해 환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선정기자

전남도, 내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0억 지원

연리 1% 저리 융자...31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전남도는 12일 “친환경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0억원을 연리 1%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를 바라는 친환경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 및 지원 자금은 서류와

현지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1월 말 최종 확정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로 개인은 1억원, 법인 5억원, 유통업체는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운영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 자금은 2년 거치 6년 균분 상환이며, 소득 발생이 늦은 과수

는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지원 자금은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으로 구분된다. 운영 자금은 친환경 배·고구마 등 원료 구입, 버섯종균, 포장디자인 개발·포장재 제작, 판매장 임차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설 자금은 육묘장 신축, 저온저장고 설치, 가공·유통시설 신축,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재정기자

도, 박명성 전국체전 개·폐회식 총감독 위촉

광주하계U대회 등 국제행사 경험 풍부 성공 개최 기대

전남도는 12일 도청에서 2023년 목포를 중심으로 개최 예정인 ‘제104회 전국체전·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총감독으로 박명성 예술감독을 위촉했다.

해남 출신인 박명성 총감독은 1982년 연극배우로 문화예술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40여 년간 무대감독, 연출가, 공연 프로듀서로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1999년부터 혁신적인 사고와 새로운 시도로 초대형 뮤지컬을 기획, 제작하며 한국 뮤지컬 흥흥기를 이끈 뮤지컬계의 ‘미다스(Midas) 손’으로 통한다.

특히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폐회식 총감독, 2017년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개막식 총감독 등을 통해 쌓은 탁월한 행사 기획력과 연출 노하우로 온 국민 스포츠 축제의 시작과 끝을 성공적으로 장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체전의 성패는 개·폐회식이 좌우한다”며 “박명성 총감독이 탁월한 무대 연출 역량으로 세계적 무대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국체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중요한 이벤트인 개·폐회식을 감동의 무대로 연출해낼 역량 있는 인사를 총감독으로 선임하고자 관련 업계의 명망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총감독추천위원회를 운영했다.

추천위원회에서 12명의 총감독 후보자를 놓고 행사 기획력, 연출 능력, 역량 등에 중점을 두고 열린 논의와 검증을 진행해 전국체전조직위원회위원장(도지사)에게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해 그중 박명성(㈜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이 전국체전 개·폐회식 총감독으로 선정됐다.

박명성 총감독은 “내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개·폐회식 총감독을 맡게 돼 책임이 막중하다”며 “전남의 특색을 담아 새로운 콘텐츠를 구성해 역대 최고의 개·폐회식 행사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감독 위촉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장애인체전이 끝나는 11월까지 11개월이다. /김재정기자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 온 전국 1,257개의 산업단지

- 기업의 성장을 위한 **디지털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저탄소화**
- 찾고 머물고 싶은 **공간 인프라 확충**
-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안전·안심 일터 조성**
- 성장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지역 중심 개편**

산업단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혁신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시대, 다시 도약하는 산업단지

산업단지 디지털 혁신

산업단지 대전단 프로그램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

저탄소 대표모델 산업단지 구축 친환경 탄소저감 산업단지

찾고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확대 산업단지 브랜드화로 산업관광 활성화

함께하는 안전·안심 산업단지

Safety Zone 운영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 감축

기업과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산업단지 제도 전면 재검토 산업단지 외국인 인력 수급방안 마련